

8월 동향

- 03 제39차 집행부회의
06 제7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09 2학기 신입직원 연수(노조 교육 실시)
09 2/4분기 노사협의회
10 제40차 집행부회의
12 제8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17 제41차 집행부회의
19 직원문화행사(프로야구 관람)
- 19 제9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23 비리재단북귀반대 전국 대학 간담회
23 제79회 직원인사위원회
24 제42차 집행부회의
26 제10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26 제12대 노조 1차년도 후반기 결산 감사
30 제8차 대의원회의
31 제43차 집행부회의

알림터

대구대·고려대 등 교원양성기관평가 'A' [한국대학신문2010.8.27]
대구대·고려대·공주대·성신여대·중앙대 등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평가결과>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3926>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1일 발표 [한국대학신문2010.8.25]
교과부가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들을 A·B·C등급으로 구분, 학자금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학자금대출제도의심의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 그 명단이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3854>

임시이사 선임 교과부로 ... 공정성 문제있다 [교수신문2010.8.23]
興野, 지금 사분위로는 안 된다. 폐지론 확산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0976>

[대학전문] 사학분쟁의 근원적 처방안 [교수신문2010.8.23]
한국에서 사학이 이렇게 많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013>

80.4% 차지하는 부동산, 수익성 제고 필요 이유 [교수신문2010.8.23]
[사립대 재정위기, 그 해결방안을 찾아서] 대학법인 수익용 부동산 활용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1012>

[지혁선신호]

가사판

대구대학교 제12대 노동조합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정기총회 안건

- 1차년도 결산보고
- 2차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및 승인
- 적립금 현황 보고
- 기타 안건

일시 2010년 9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성산홀(본관) 강당

퇴직 및 신입 조합원 소식

>> 퇴직 조합원 8. 31자 퇴임

황두환 사회과학대, 정년퇴직
이경재 점자도서관, 명예퇴직

>> 자격상실 조합원 9. 1자 4급 승진

박배호 구매팀
오석창 국제교육지원팀
김현수 DU문화원 행정실

>> 신입 조합원 9. 1자 신규 임용

김병래 입학사정관팀
박주희 국제교류팀
윤성호 산학연구진흥팀
정진미 대외협력팀
정진욱 산학연구지원팀

사무실에서

>> 이런 사람 꼭 있다! - 「구강 엘리트」 편

입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구강 엘리트

입만으로 능히 백만 대군과 대적할 만하다. 그가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느냐에 따라, 우리 팀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다. 그런데 정작 업무는 동료들 몫, <홍보부> 참고서적 <인물취급설명서>

폭탄발견

누군가 일을 맡아야 할 때, 그가 입을 연다. 별것 아니라고 이러쿵저러쿵 떠든다. 나름대로 파악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기본적인 구상과 구성도 펼쳐놓는다. 그런데 일을 맡기려고 하면 금세 자신은 할 일이 많다고 발뻘뻘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샘이 좀 하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 다른 팀원이 고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툭툭 부정적인 연탄 쏘아준다. 시작부터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니 실패한 기획으로 낙인찍히기 일쑤다.

폭탄분석

상황 판단이 빠르다.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움도 있다. 덕분에 관철은 아이디어를 낼 때도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은 제로. 폭식 있게 일을 끌고나가기보다는 판단하고 분석해 입으로만 진행한다. 오지랖이 넓기에 여기저기 간섭하는 것도 특기다. 때론 그의 조언이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쉽게만 바라보고 쉽다는 말을 남발하기에 주변 동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가 맞는다면 그는 돌맹이를 던지는 개구쟁이다. 개구리는? 물론 당신이다. 입으로는 CEO 자리도 부족한 그는 ‘구강 엘리트’다.

‘구강 엘리트’의 입에
강력접착제를 바르는 5가지 방법

폭발 5초전, 뇌관 분리 요령

1. 인내

폭발의 제 감 길로

사무실 폭탄은 심리적 후폭풍이 크다. 폭발의 중심에 있지 않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지레 곤란에 빠진다. 게다가 사무실에 하나의 폭탄만 있다는 보장은 없다. 휘둘리기 시작하면 총창지는 멀어진다. 이럴 땐 발에 힘을 주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상책이다. 특히 폭탄의 신경을 건드리는 ‘구강 엘리트’가 주변에 있다면 더욱.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변의 시선에 눈길 주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부작용 시작하기 쉽지만 버티긴 힘들다. 매주 산에 올라 신선 수련!

2. 협력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당신의 별명이 ‘곰’이라면 가능하다. 폭죽 같은 재치나 바늘 같은 분석은 ‘구강 엘리트’에게 맡기고 당신의 주무기인 끈기로 뒤를 봐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고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 배신당하기 일쑤다. 둘이 공동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할 결과도 함께 나눠야 한다. ‘구강 엘리트’의 절한 척을 무던하게 넘길 두목한 뱀심도 필요하다.

부작용 일러라. ‘구강 엘리트’ 견제하라. 늘어난 디스크를, 판다가 된다.

3. 반격

물고 늘어져라

전면전이다. 그가 입을 벌리면 독보다 실이 많은 걸 깨닫게 하라. 일단 과거의 전력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다. ‘구강 엘리트’가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 그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든, 책임을 회피하든 그의 말에 전면적으로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말아서 하세요.” “당신은 우리 학교 직원 아니가요?” 같은 날카로운 비수도 폭속에 준비해야 한다.

부작용 ‘구강 엘리트’가 욕상으로 불려낼지 모른다.

4. 속전

나락의 지름길

사실 ‘구강 엘리트’는 외출타기를 하는 중이다. 자신도 안다. 조금 방심하면 출세에 발을 헛디디거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균형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걸. 그래서 스스로 수위를 조율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방심하거나’ ‘바람이 분다’면?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면? 그렇다. 앞에서 은근슬쩍 맞장구쳐 제기분에 폭주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수위를 넘어 말만 앞서는 ‘구강 엘리트’의 모습을 상사가 직시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하자.

부작용 맞장구쳐다가 책임이 당신에게 쏟아질지도.

5. 밀폐

철저한 준비로 질식사

‘구강 엘리트’가 말로 사무실을 휘젓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려운 사람이란 무서운 사람(상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특히 실력이 월등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생각을 깨부수면 그는 묵언수행을 시작한다. 그가 일을 미루기 전에 앞장서 말끔히 일을 해내고, 부정적인 의견에 철저하게 준비해 조목조목 반박하면 곧 백기를 드는 걸 볼 수 있다.

부작용 실력이 반짝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해물탕을 봐야 한다.

안전한 일터 >> 스마트폰중독군

‘스마트폰’ 잘 못 쓰면 毒?

요즘 ‘아이폰4’ 예약자가 넘쳐나 대기명단에도 들지 못한 예약자에게는 다른 휴대폰을 무상제공한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갤럭시S’가 국산 휴대폰시장을 평정했다는 소식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텔레비전을 커도 휴대폰 광고는 스마트폰 일색이다. 세련된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까지. 업무와 시간에도 수시로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즐거움 뒤에는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있으니 ‘스마트폰중독군’ 또한 기세가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중독군은 정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찾아오는 몸의 이상을 가리킨다. 첫 번째 증상은 과도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손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 인대에 눌려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할 경우 통증까지 느껴지는 증상이다. 짜릿한 ‘손맛’을 위해 엄지와 검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면 피해할 수 없는 증상으로 직업상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손가락 관절 퇴행과 다를 게 없다.

두 번째 증상은 ‘스마트폰 디스크’다. 구부정한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작업은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다 허리와 목에 무리를 느끼는 증상으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한 후 발생한다. 목뼈가 일(一)자가 되어 가만히 서 있어도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을 때에는 작은 충격도 견디지 못하는

목 디스크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원래 30~60대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병 연령대가 20대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움직임이 없고 고정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만약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구부정한 자세는 피하고, 일정 시간 사용한 후에는 꼭 손과 목을 풀어주고 스트레칭해줄 것을 권한다. 생활에 ‘독’이 되도록 만들어진 기기가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 스마트폰중독군 예방법

손목	손목 돌리기, 털기, 깎지 끼고 팔 뻗기 등의 스트레칭을 자주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손목을 바로 편 자세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여러 손가락을 사용하며 1시간에 10분씩은 꼭 휴식을 취한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고 반복적으로 쥐었다 펴는 동작도 큰 도움이 된다.
목	고개를 숙인 채 자세의 변화 없이 스마트폰을 10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액정 화면과 눈높이 간 거리를 10~15도로 유지하고 사용 후에는 손을 이용해 고개를 좌, 우,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근육이 뭉친 것이 느껴진다면 따뜻하게 찜질을하거나 동료에게(^^) 마사지를 받는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중 간단한 스트레칭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